○ **정부·여당,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박차 ...정파·이념을 초월한 교육정책 수립하자는 취지**

- 민주당, 6월 임시국회에서 '국가교육위원회 설치·운영 법안'(국가교육위法)을 입법 완료하고 연내 출범시키겠다는 목표

○ **하지만 설립 목적인 '정파·이념 초월 독립적 기구'가 될 지 의문**

- 민주당, 국가교육위法을 국민의힘 의원들을 배제한 채 일방 처리(6/10)
- 국가교육위 위원 21명중 국회 추천 여당 몫 4~5명, 대통령 지명 5명, 교육부 차관을 포함하면 절반 또는 그 이상이 친정부 성향
- 국가 백년대계 교육정책이 정권 입맛에 맞게 좌우될 가능성이 불문가지

○ **그러잖아도 文정부 위원회는 2020.12월 기준 593개로 역대정권 중 최다**

- 문 정부 출범 첫해 2017년(556개) 대비 37개 증가
  - 이명박 정부 2008~2012년 중 -68개, 박근혜 정부 2013~2016년 중 18개 증가
- 이중 121곳(20.4%)은 1년간 회의를 열지 않거나 한 번만 연 사실상 '식물위원회'
  -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58곳(9.7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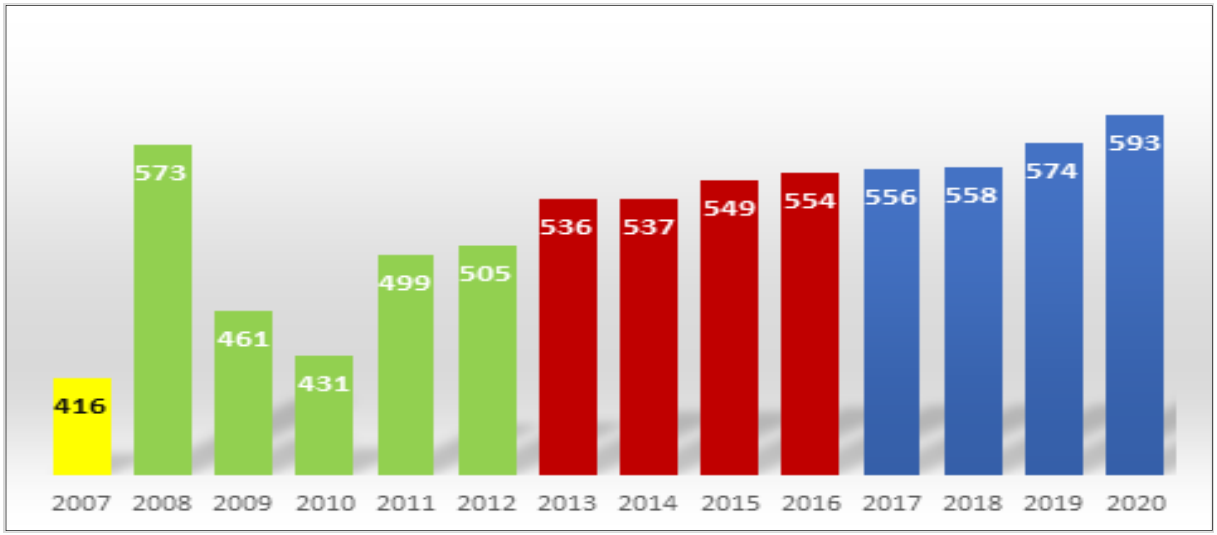
○ **결국 '대못 박기'를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**

- 핵심 교육정책을 차기 정부에서 못 바꾸게 하려면 교육위를 연내 서둘러 출범시켜야 함

○ **초당파적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국가교육위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그리고 그 구성은 정권과 독립적이어야 할 것임**

文정부 위원회, 20.12월 기준 593개로 역대정권 중 최다... 58곳은 1년간 회의 0번

단위: 개



출처: 자료: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행정기관위원회 https://www.org.go.kr/orgnzt/cmitSttus/viewGnrl.do